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운곡서원 은행나무 단종 금성대군 사육신 죽림공 갈산공을 잇는 서사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유연정(悠然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을 벗 삼은 수령 250년의 압각수(鴨脚樹, 은행나무)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端宗)과 금성대군(錦城大君) 사육신(死六臣) 죽림공(竹林公, 諱 山海 1403~1456) 갈산공(葛山公, 諱 宗洛 1745~1819)으로 이어지는 서사(敍事,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적다)를 간직하고 있다.

갈산공은 단종 사하로 순절한 충신(忠臣)들이 모두 복권(復權) 증직(贈職)이 되었는 데도 유독 자신의 12대조(竹林權山海, 端宗의 이모부 宗簿寺 僉正)만 빠진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궁 밖에 나온 정조대왕(正祖大王)의 어가(御駕)를 격쟁(擊錚, 징을 울려 왕의 행렬을 가로막고 억울한 사정을 알림)으로 가로막고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정조 13년(1789), 죽림공(후일 忠愍公)은 갈산공의 목숨을 건 격쟁(擊錚)으로 신원(伸冤)이 되고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됐다. 그제서야 무덤 앞에 비를 세울 수 있었고 순흥 금성단(錦城壇)과 단종을 모신 영월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正壇 32인, 別壇198인)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端宗)을 제 자리로 돌리는 데 생명(生命)을 걸었던 금성대군(錦城大君)과 같은 길을 걸었던 죽림공(竹林公), 부정공파(副正公派)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단종(端宗)을 위해 절의를 지킨 절신들과 깊은 인연을 쌓게 된다.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과는 성(姓)과 가문(家門)은 틀리지만 하나의 가치관(價値觀)을 위해서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아졌다.

갈산공은 한양(漢陽)에서 정조(正祖) 임금으로부터 받은 교지(敎旨)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 영주 순흥 금성대군(錦城大君 사적 491호) 신단(神壇)에 들러 고유(1789년 5월 15일)하고 그곳 압각수(鴨脚樹) 가지를 한자 남짓 잘라 행랑에 넣고 고향길을 재촉했다.

예천 염송산 피아골 죽림공 묘소에 들러 신원 사실을 고유(告由), 분황(焚黃, 교지를 죽림공 묘소에서 불태우는 의식)을 하다 보니 한 달이 걸려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도착했다. 1789년 6월 16일 갈산공은 서원(書院) 동쪽 용추언덕 자리에 겉껍질이 말라버린 압각수(鴨脚樹, 은행나무) 가지를 행장에서 꺼내 심었다. 친족들이 "은행나무가 살아날리 없다"고 말하자 공(公)은 큰 소리로 "죽림竹林 선조先祖의 충절忠節이 드러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공의 예언처럼 기적 같은 새 움이 나와서 237년(경주시 보호수 11-15-16)이 넘는 풍상(風霜)을 안고 지금의 노거수로 자랐다. 이 압각수(鴨脚樹, 나뭇잎이 오리 발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의 모(母)나무가 되는 순흥 금성단(錦城壇) 은행나무도 특별한 사연을 지닌다.

단종 1년(1452) 멀쩡하던 은행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갔다. 이 지역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특별한 이력으로 충신수(忠臣樹)로 불린 이 나무를 두고 순흥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가 말하길 "순흥은 곧 폐향이 될 것이다. 순흥이 복향되면 이 은행나무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점쟁이의 예언처럼 세조 3년(1457) 단종 복위운동을 벌였던 금성대군(錦城大君)도, 대군을 따랐던 사림들이 몰 죽임을 당하고 순흥부는 폐향됐다.

230년이 지나 단종의 왕호(王號)가 복원(復元, 숙종 9년 1683)되고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사육신(死六臣), 생목숨을 잃었던 충절들이 복권(復權)되자 순흥부도 복향이 되고 점쟁이의 말처럼 은행나무(수령 1100년 추정)도 기적같이 살아났다.

이로부터 금성단(錦城壇) 은행나무는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하신 금성대군(錦城大君) 등 충절들의 넋이 깃던 나무로 불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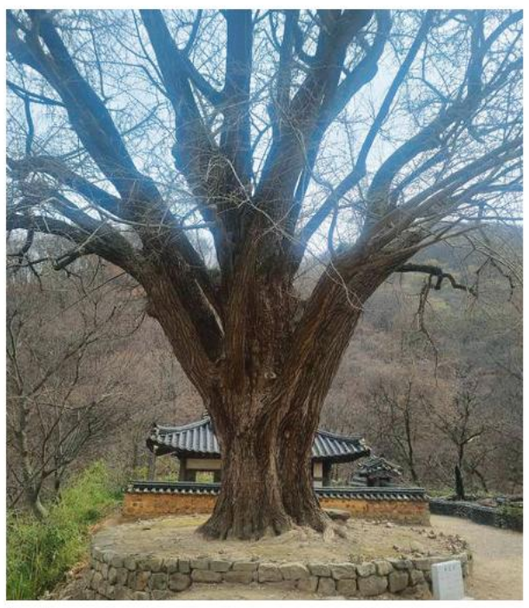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 영조 때 남인 실학자 교육가 역사가)의 문집 '성호사설'에도 단종(端宗) 폐위 후 200년간 고사(枯死)했다가 단종(端宗)이 복위되고 금성대군(錦城大君) 등 당시 희생된 충절들이 신원(伸冤), 이들의 넋을 기리는 제단(祭壇)이 만들어지자 새 잎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충절들의 진혼(鎭魂)이 서사(敍事)된 금성단(錦城壇) 은행나무는 갈산공(葛山公)이 운곡서원에 심은 압각수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한국의 명 노거수로 자랐다. 높이 30m, 둘레 5m, 가지는 앞산을 가릴 만큼 풍성하다. 늦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려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 역사적 의의는 물론 독보적인 경관 가치를 자랑한다.

지난달엔 경상북도(慶尙北道)가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키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비운의 왕 단종(端宗)과 그를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錦城大君), 사육신(死六臣) 죽림공(竹林公)의 서사가 깃든 운곡서원(雲谷書院)과 금성단(錦城壇) 은행나무를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 무형자산을 말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경주 운곡서원은 실패한 정의였지만 시대가 변하니 재평가되고 전 국민이 치른 500년 만의 국장(國葬)이란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 조선 제6대 임금 단종과 금성대군(錦城大君) 죽림공(竹林公) 갈산공(葛山公)으로 이어지는 서사(敍事)를 답사객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오석 와비(臥碑, 누운 비석)를 세워 5월 초 제막식을 갖기로 했다.

〈자료 출처: 조선왕조실록,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갈산집葛山集, 예천군사醴泉郡史〉



임진왜란의 권응수 의병장의 그 정신을 흠모하다

권오영
(35世, 복야공파)

어느 국가이든 나라마다 굴곡과 병란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발전된 국가를 이룩하는데 기틀이 되고 초석이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분들의 정신과 노고를 기리고 추모하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고 한다. 역사를 잘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며 또한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이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와 나라의 국격이 높아진다. 나아가 개인의 품격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오늘의 기준으로 볼 때 때에 따라서는 통분과 교훈을 느끼며 당시의 살못된 점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는 역사적 진실을 되돌아보고 나라를 안팎으로 튼튼하게 세우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심어주어야 된다.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당시 왜군은 20만 병력으로 조선을 침입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전쟁 발발 20일 만에 한양 도성을 점령하게 되어 임금은 의주로 몽진을 떠났다. 이러한 전쟁은 왜장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분상 가도입명(假道入明)이였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조선을 통하여 명나라를 치고 인도까지 점령의 야욕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저항과 명나라의 지원군으로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에서 수군의 대파로 해상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의 군수지원이 낙동강 상류를 통하여 내륙으로 수송하는 당초 계획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해상의 봉쇄작전으로 왜군들은 본국의 군수지원이 끊어져 식량 조달이 어려워지고 조선의 겨울 추위에 전쟁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또한 전국지역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기습전, 전면전과 명나라의 지원군으로 왜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명나라와 강화회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593년 10월에 선조 임금은 몽진 1년 4개월 만에 한양으로 다시 돌아왔다. 또한 왜군의 막부 풍신수길의 사망으로 조선의 왜군은 왜란 발발 6년 4개월 만에 철수하는 길에 들어섰다. 선조 40년에(1607년) 전란 당시 공을 많이 세운 유성룡을 호성공신에 책봉하였으나 본인은 사퇴 상소를 올렸고 유표(遺表: 죽을 때 올리는 상소)를 써서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①난리(병화)는 언제고 일어나는 것이니, 먼 장래까지 대비하소서 ②신하들을 깊이 관찰하시어 바른 정사를 세우소서 ③백성을 고이 기르시고, 어진 이를 등용하소서 ④군정을 밝게 하시고, 훌륭한 장수를 골라 쓰소서였다(이번영의 소선 왜란에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 420년 전에 일어났던 미증유의 전란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들어왔다. 이제는 그 교훈을 청소년 세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되새기고·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가는데 교과서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익혀야 된다. 그 당시의 당파싸움 (동인/서인)/통신사절단의 상이한 보고/병화 준비의 소홀함과 왜군의 정보 무지 / 이순신 장군의 6대 해전과(노량, 사천, 당포, 한산도대첩, 옥포, 부산포해전)과 3대 대첩(이순신 한산도대첩, 김시민 진주성대첩, 도원수 권율 행주대첩) 승리 / 영의정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의 문무외교/ 승병장(서산, 사명대사) / 의병장(곽재우, 권응수, 조현, 고경명, 김천일)의 역할은 오늘의 한국인들(위정자)은 그들의 국난회복을 위한 역할과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특히 전국의 의병장 가운데 권문의 권응수 의병장 사당이 경북 영천에 있어 올해는 한 번 참배하고 조상님의 얼을 되새겨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로 보는 지혜를 가지고자 다짐해 본다. 이 모두가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입증되고 유성룡의 유표(遺表) 상소의 네 가지를 굴곡된 역사의 흐름으로 바로 보는 지혜를 우리 후예들 모두가 가져야 한다.

속자치통감 215권을 끝내고

권중달(중앙대 명예교수)

오늘로 속자치통감 220권 가운데 215권의 역주작업을 마쳤으니 앞으로 5권만 마치면 이 역주 작업도 끝난다. 돌아보면 1997년 자치통감의 역주작업을 시작하여 이를 완역하여 출간하고 다시 속자치통감의 역주 작업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꼭 30년이 걸린 셈이다. 속자치통감의 역주 작업은 아무리 늦어도 금년 여름까지는 탈고할 것 같다. 물론 출간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터이지만 말이다. 언제 속자치통감이 다 출간되느냐고 출판사에 전화로 문의하는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공부를 하면서 지난 30여 년간은 편년체 사서인 자치통감과 속자치통감을 세상에 소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셈이다. 이러한 까닭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한 사건이나 한 인물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며 그것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인 듯싶고, 이는 길을 가다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 사건, 한 인물에 대한 천착(穿鑿)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체 역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한 점에 그치는 것이다.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특정 사건이라는 한 점만을 알고자 하는데 그친다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의 반도 안 될 것이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에서 사건 하나하나는 구슬 한 개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시간이라는 줄에 꿰어 보아야 비로소 그 목걸이나 팔찌가 빛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하나하나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시간이라는 줄에 꿰어서 보라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 이렇게 구슬을 줄에 꿰어 보라는 내 말은 현재 거의 계몽 수준이다.

아직도 '기전체 역사서가 정사(正史)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기전체는 여러 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같은 색깔의 구슬을 한 자루에 모아 놓고 아직 꿰지 않은 원료일 뿐인데, 그 자루에 들어있는 구슬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시간이라는 줄에 꿰어 보아야 비로소 형형색색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조차 구슬하나를 찾기에 노력하지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인류의 장대한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고 서술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 오히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이 장대한 흐름을 쓰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역주한 자치통감과 속자치통감이 거의 2천년이라는 세월의 줄에 사건이라는 구슬을 꿰어 놓았으니 전체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능병기달권과 성현의 도가 실현된 행주대첩과 후손의 길

권혁도(좌윤공파)

안동권문기원 1097년 03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주산성에서 봉행된 제433주년 행주대첩제를 참관하게 되었다. 참관 후, 우리 안동권문의 자랑인 〈능병기달권(能炳幾達權)〉이 그대로 실현된 성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어 미진하나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행주대첩의 승장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자는 언신, 호는 만취당 및 모악)은 중종 32년(1537년)에 추밀공파 문정공 권보(權溥)(도첨의정승)의 9세손, 조선 개국공신 문충공 권근(權近)(대제학)의 6대손, 강정공 권철(權轍)(영의정)의 4남으로 태어났다. 선조 15년(1582년) 식년시 문과에 병과 15위로 급제하였고 9년 만에 승문원 정자(정9품)에서 의주 및 광주 목사(정3품)에 오르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선조 25년(서기 1592년) 조일전쟁이 발발하자 전라도 순찰사(종2품) 이광 등의 삼도근왕군의 중군 소속으로 관군 1천 5백을 이끌고 용인전투에 참전하였다. 전투 자체는 패전하였으나 휘하 병력을 온전히 귀환시킨 공을 인정받아 전라도 절제사로 임명되어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휘하 일본 제6군의 전라도 진공 시도를 이치전투에서 막는데 성공하였다.

승전 후 전라도 순찰사로 승진, 정병 1만을 이끌고 근왕 및 도성 수복을 위해 북상하여 수원 독성산성에서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휘하 일본 제8군을 격파하였다. 선조 26년(1593년) 관군 2천 3백과 승군 5백 이상을 이끌고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한성의 일본군을 견제하게 된다. 행주에서의 승전 후 김명원(좌의정)의 후임으로 도원수로 승진하였다. 선조 29년(1596년) 한성부판윤 및 충청도 순찰사로 전임되었지만 전쟁이 재발하자 다시 도원수에 임명되었다. 이후 울산성 전투 등 사로병진책(四路竝進策)을 수행하면서 조선군의 작전술 운용을 전담하였다. 종전 다음해인 선조 31년(1599년) 음력 7월에 자택에서 졸(卒)하였고 선조 37년(1604년)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孝忠杖義迪毅協力宣武功臣) 및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및 충장공으로 봉해졌다.

행주대첩의 배경을 전술 및 작전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의 (대)전략적 목표는 조선 정복 및 이를 통한 대륙 진출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술 단계의 전투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제4차 평양성 전투에서 패퇴한 이후 일본군의 중간목표는 '적 주력 격멸 및 한성 방어'로 변하였다. 반면, 조선군의 (대)전략적 목표는 '일본 침공군의 전면적 패퇴 및 영토의 완전한 수복'이었다. 일본군과 달리, 조선군의 중간목표는 '적 주력 격멸 및 한성 탈환'에서 변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개성에 주둔한 조명연합 전선군과 수원에서 북상한 권율의 야전군 및 다수의 사단(여단)급 이상 제대가 일본군을 견제하고 있었다. 이 중 일본군에게 가장 위협인 적의 주력은 권율 휘하의 야전군이었다. 일본군은 새로운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 '권율 휘하의 야전군 주력 격멸'을 전술적 목표로 상정하였고 이를 제1군, 제3군, 제6군, 제7군, 제8군 등 다수 야전군을 3만 병력의 전선군으로 통합하여 작전술 단계의 전투행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이 행주대첩의 배경이다.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은 7개 대(隊)로 편성한 전선군을 투입하여 병력이 열세인 조선군을 소모 및 붕괴시키는 작전술 단계의 '차현전(車懸戰)'을 감행하였다. 또한, 각 대는 조선군을 혼란시키기 위해 전혀 다른 유형의 전술을 운용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휘하 제1군이 주력인 제1대와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등 오봉행(五奉行)의 혼성야전군이 주력인 제2대는 성벽에 올라타는 강습돌격인 의부(蟻傅) 전술을 사용하였다.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휘하 제3군이 주력인 제3대는 누각을 만들어 위에서 철포 사격을 가하는 헌거(軒車) 전술을 사용하였다. 우키타 히데히에(宇喜多秀家) 휘하 제8군이 주력인 제4대는 제1대 및 제2대와 마찬가지로 의부 전술을 사용하였다. 킷카와 히로이에(吉川広家) 휘하 제7군이 주력인 제5대는 목책을 화공(火攻)으로 공격하는 화대(火隊)의 전술을 사용하였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휘하 제6군이 주력인 제6대와 제7대는 다시 의부 전술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제1목책선과 자성의 제2목책선을 붕괴시켜 조선군의 보급물자를 바닥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성을 공략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맞선 조선군의 전술은 다음과 같다. 제1대부터 제4대까지의 공격에는 일본군의 철포 및 츠부테(つぶて, 돌팔매) 중심의 단거리 화력 투사를 능가하는 총통 및 궁시, 석전(石戰) 중심의 장거리 화력 투사로 대응하였다. 제5대와 제6대의 공격에는 각각 방화수 및 재주머니를 사용함과 동시에 출성(出城)하는 전술로 대응하였다. 제7대의 공격에는 일본군의 장점인 백병전(白兵戰)으로 대응하고 경기수사 이빈(李蘋)과 충청수사 정걸(丁傑)의 재보급을 활용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양 군의 전술적 행동 및 조선군의 승리 요인에 대하여는 묵자(墨子)와 손빈 등 고전 및 정책학, 통계학을 고려한 RSW를 활용하여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손빈은 유리한 형세를 전개하기 위한 전술 및 작전술 운용(勢備)의 4가지 요소로써 진법(陣法), 변화(變化), 군세(軍勢), 권술(權術)을 제시한다. 우선 진법적 측면에서 일본군의 차현전에 맞서 조선군은 본성과 자성이 서로 협조함으로써 진을 안정시켜 싸울 수 있었다. 이에 연동하여 변화적 측면에서 일본군의 다양한 전술에 맞서 조선군 또한 방화수와 재주머니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사의 힘을 좌우하고 결과를 보이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군세 및 Spirituality(정신) 측면에서는 벽제관 전투와 독성산성 전투에서 각각 승리하여 사기가 최고조에 달한 양군이 정면충돌 하면서도 최후까지 전투속행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조선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충장공의 엄격한 군율 적용이 있었다. '주도권을 장악'하는 권술 및 Will(실행력) 부분에서 '상대방을 격퇴하기 위한 화력의 수요와 공급 간 상호 작용'에서 조선군은 전투 중간에 보급물자가 바닥나 공급곡선이 수축되는 위기가 있던 시점을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전투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Reflexivity(성찰성) 측면에서는 조선군은 전술한 손빈의 4가지 요소 모두 일본군에 우위에 있었고 이를 작전술적 측면까지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정세를 잘 판단하고 기미에 능하고 권도에 통달하였다는 것〉, 즉, 〈능병기달권(能炳幾達權)〉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행주대첩에 관하여 다루는 수많은 서적과 논문이 있다. 그러나 천년을 자랑하는 우리 안동권문에서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성현의 도가 실현된 만대에 걸쳐 자랑해야 할 영광이다. 격변하는 시대에 성현의 도에 도달한 우리 안동 권문의 기개를 다시 펼쳐야 할 이 시기에 행주대첩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